

# 1인 업체에 수주실적 10배 넘는 철거작업 몰아줘 '의혹'

한솔기업·다윈이앤씨, 왜 백솔건설에 불법 하도급 줬나

설립 1년 실적 고작 2건 6900만원... 당일 사장이 굴착기 작업 한솔·다윈이앤씨 학동 3구역 재개발 때도 참여... 연결고리 주목 경찰, 회사 간 얽힌 관계·선정 과정 불법 행위 등 수사력 집중

한솔기업은 왜 경험, 기술력, 인력 등이 턱없이 못 미치는 '1인 건설사'인 백솔건설에게 수주 실적의 최소 10배가 넘는 철거현장을 맡겼을까.

경찰이 '광주시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한솔기업과 백솔건설 간 연결 고리를 밝히는 데 주목하고 있다.

설립 1년 된 신설 건설회사가 여태껏 수주한 사업 규모의 10배가 훨씬 넘는 대규모 사업을 따낸 과정을 밝혀낸다면 대형 참사의 원인 뿐 아니라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파헤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당장, 대형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다보니 '학동 재개발구역' 내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 수사가 조금씩 확대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재개발·철거업체에서도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사실상 '1인' 건설사. 느닷없이 핵심 철거업체로 왜-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건물 철거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행한 백솔건설은 직원이 2-3명이 전부인 사실상 1인 건설사로 보고 있다.

백솔건설 대표는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현장에서 직접 굴착기를 몰아 붕괴건물 철거를 직접 한 기사이기도 하다. 백솔건설은 지난해 2월 설립된 뒤 같은 해 3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2020년)를 따. '석면해체 제거업자 면허'(2020년)도 같은 해 11월 취득했다.

자격증을 갖춘 백솔건설 기술자도 2명(기사 1명·기능사 1명)이 전부로, 설립 이후 공사 실적도 2건(6900여만원) 뿐이다.

이같은 '미나' 회사에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학동 4구역 610개동 일반건축물 철거계약'을 독식

한 서울 소재(주)한솔기업이 뜬 떼어 백솔건설에 철거 용역을 맡긴 것이다. 한솔기업과 백솔건설 간 관련성에 주목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자 선정 등을 이유로 한솔기업, 백솔건설을 다윈이앤씨와 관련된 회사로 보는 시각도 흘러나온다.

다윈이앤씨는 '철거왕'으로 불리는 이금렬씨가 운영하는 다윈그룹 소속으로,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석면철거' 공사를 맡았다. 백솔건설은 여기에서도 일부 석면철거 공사를 넘겨받는 '해택'을 봤다. 백솔건설이 다윈이앤씨로부터 석면 철거 공사 계약을 넘겨받을 당시엔 석면해체 관련 면허도 없었다. 인·허가 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적 허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재개발사업 불법 고리 확인하는 데 수사력 집중 앞서, '학동 3구역 재개발사업'에서도 한솔기업, 다윈이앤씨 등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지역 재개발업계에서는 당시 참여했던 이들 회사들이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에도 고스란히 이름을 드러내면서 관여하고 있는 점, 이들 업체들을 통한 불법 단단계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윈이앤씨측이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과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다윈이앤씨측이 ▲일반건축물 철거 ▲사업구역 내 석면철거 ▲지장물(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철거 등 3개 철거 사업 분야에서 일반건축물, 지장물 철거 등 2개 사업을 추진중인 한솔과 어떤 계약을 맺었다면 철거 공사 전 분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경찰은 이같은 점을 들어 시공사와 조합, 그리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현장에서 지난 10일 오후 국과수와 경찰 등 합동 감식반이 사고 현장을 감시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고 철거업체간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사고와 관련, "붕괴 직전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철거 작업을 하다 건물 옆에 쌓아놓았던 흙더미가 무너졌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 한솔기업 대표, 한솔기업 현장관리자, 백솔건설 대표, 감리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백솔건설 대표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사기 혐의' 청연메디컬그룹 대표이사 구속

청연메디컬그룹(청연한방병원 등) 대표이사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청연한방병원 A 대표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A 대표원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 대표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되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된 이후 반 년째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A 대표는 투

자자 등 7명에게 170억원 이상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연메디컬그룹은 지난 2008년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방병원을 연 이후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면서 해외 의료기관 개설, 한약재 제조, 부동산 사업 등으로 확장하다 현금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또 소유 건물을 리츠 운영사에 팔고 재입대해 이용하는 '리츠 매각'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뒤 부도 위기에 몰렸고 법원에 개인·기업 회생 신청을 내면서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광주 풍영정천서 초등생 2명 물에 빠져 사망

물놀이 금지 팻말 등 없어 경찰, 사고 경위 조사 중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두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풍영정천 징검다리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 2명이 물에 빠져졌다.

이 사고로 물에 빠진 A(10)군과 B(10)군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친구사이인 A군과 B군은 이날 하천에 들어가 물총놀이를 하던 중 자리를 옮기다 깊은 곳으로 이동,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과 B군이 빠진 하천의 수위는 평소 1m 수준이지만 최근 내린 비로 인해 유량이 증가, 수위가 1.5m 수준까지 높아지고 유속도 빨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이 빠져 숨진 하천 주변에는 물놀이를 금지하는 팻말, 위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함 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측은 물놀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해당 구역에서는 수질이 좋지 않은 점 등으로 물놀이를 하지 않아 관련 팻말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기성용 농지법 위반 불송치...아버지만 송치

광주경찰청 부동산특수팀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성용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씨는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을 들여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와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았다.

기성용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측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 돈만 보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기성용이 농지를 구매하는 과정을 인지

했거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진술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사건을 종료했다.

경찰은 기성용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하면서 기전 단장이 기성용 몰래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기씨 부자의 농지에 대해 농지로 사용 중인지 여부를 단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은 서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